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방향*

A Direct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based on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호남대학교 생활과학전공
교수 윤숙현

Dept. of Human Ecology, Honam Univ.
Professor : Yoon Sook-H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movement and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re concepts which became the center of public interest because of the evil practices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econd,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environment is comparatively high, but the level of the power of execution is comparatively low as a whole. In the case of Korea, people have not yet the mature responsibilities of citizenship. It is very important to enforce different informal educa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Home training based on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is the most important informal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nsequently, for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we need to do our best endeavors such as home training based on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environmental education based on our social and cultural

Corresponding Author: Sook-Hyeon Yoon, Department of Human Ecology, Honam University, 59-1 Seobong-Dong, Gwangsan-Gu, Gwangju 506-714, Korea Tel:82-62-940-5413 Fax:82-62-940-5083 E-mail:shyoon@honam.ac.kr

* 본 연구는 2002년도 호남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background, and more powerful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is administrative support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ntrol.

주제어(Key Words):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환경운동 (environmental movement)

I. 서론

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생산방식의 발전은 산업현장과 가정생활에서 자원의 사용을 증대시키고 생활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으나, 이와 함께 산업생산의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켜왔으며 자원의 훼손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초래해왔다.

발전된 기술의 결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이용자인 소비자는 소비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게 되었고, 소비결과로 인한 폐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 모든 지역에서 총체적으로 작용하므로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공동적으로 담당해야 할 문제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발생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면서 1991년 유네스코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제시되었으며,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유진 오덤, 이동원 외 역, 1998) 경제발전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들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지나친 소비풍조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었으며, 경제적 위기가 전체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인식으로부터 근대사회 이후 진행되어온 경제성장 우선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성영신, 1994; 백경미, 1998).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구조에 의존해왔고, 공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1970년대 환경운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과학기

술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의 환경운동으로 전문화되고 이들간의 연대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1980년에 발족된 정부의 환경청이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하였으며(가톨릭 정의평화연구소, 1993), 2000년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정부, 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김명자, 2001).

생활환경 악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인 녹색소비의 생활문화가 구현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소비 위주의 생활양식이 지구환경의 황폐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환경의 황폐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과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 한 사회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구조 및 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이나 학교, 직장, 종교기관 등 가까운 생활환경 속에서의 반복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계승 및 발전이 요구된다(박영숙, 2001).

가계의 소비생활을 통한 환경운동은 문화론적 요소가 중시되는 운동이며, 이는 종전의 사회운동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 운동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의미에서 규모지향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시민중심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이덕승, 2001). 결국 환경운동에서 차지하는 개인 및 가계의 소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소비자정책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조화시키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의 시민공청회가 2000년 5월에 개최되었다(윤정혜, 이희숙, 2001)는 사실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확산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렇듯 인간과 환경 사이의 건강한 공존은 사회

구성원의 생활양식에 기반을 둔 환경운동을 통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온 개인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경제성 우선의 생활양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의 개념은 환경운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고려할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정학 분야의 관련 연구로는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박운아, 1997; 김영재, 김정숙, 1999; 민현선, 이기춘, 1999; 김은지, 유두련, 2000; 윤정혜, 이희숙, 2001), 가정의 환경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노남숙, 1994; 최남숙, 1994)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과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을 연결시킨 연구(박순희, 1997; 송인숙, 1999; 박명희, 2001; 박영숙, 2001; 손상희, 2001)나 소비자교육과 환경교육을 연결시킨 관점의 연구(서정희, 1999),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최정신, 2001a, b)가 이루어졌다.

이 주제를 다룬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가정의 관리행동과 소비자, 환경을 각각 독립된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 부분적으로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환경운동을 구체화시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과 환경운동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실증 조사를 통하여 환경운동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의 성립 및 발전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적 생활양식으로부터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생활양식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제시되어 왔다. '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도 그 중 하나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날 새롭게 제기된 방식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다.

Gregg(1936)는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개념이 중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될 만큼의 지나친 소유를 지양함으로써 삶의 어수선�함을 피하게 해주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Elgin과 Michell(1977)은 물질적인 단순성(비소비지향의 사용 패턴), 인간적 규모(보다 적은 규모의 제도와 기술에 대한 욕구), 자기결정(개인의 운명을 좀더 많이 통제하려는 욕구), 생태학적 인식(인간과 자원의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 개인적 성장(내적 성장의 탐색과 개발 욕구) 등을 이 생활양식의 핵심이 되는 기본 가치라고 하였다(Leonard-Barton, 1981).

Leonard-Barton과 Rogers(1979)는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의 개념을 운송수단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재순환, 자급자족운동, 물물교환, 중고상품의 구매, 간단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운송수단의 효율성이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뜻하며, 자원의 재순환은 병이나 캔과 같은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재창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자급자족운동이나 물물교환, 중고상품의 구매는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으로서 선물이나 가구만들기, 퇴비만들기, 채소기르기, 중고제품의 구매, 협동조합에의 소속 등을 통하여 조직의 총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한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은 식품의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Rudmin과 Kilbourne(1996)는 이 생활양식이 산업화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가난한 생활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산업화 이후의 비자발적인 복잡한 생활방식을 거쳐서 물질주의로부터 야기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송인숙, 1999에서 재인용), 비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으로부터 비자발적 복잡한 생활방식, 자발적 단순

성지향 생활방식의 순서로 진행되는 단계적 발전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 생활양식은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최근의 급속한 자연환경 및 사회적 변화—예컨대, 광물 및 화석 연료의 감소, 물과 공기의 오염, 생물학적 단백질원의 부족 등 자연환경의 변화나 이혼률의 증가, 가족의 목적과 방향의 상실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는 또 다시 이 생활양식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한다(Pestle 등, 1982).

Leonard-Barton과 Rogers(1979)는 자발적 단순성 지향 생활양식이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물질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의 더 많은 부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화의 사용을 줄이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아 이 생활양식이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생활양식이라고 보았던 반면, Cornill, Oransky & Pestle(1979)나 Shama(1981)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노동시간을 늘려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 인적 성장이나 소비에 대한 가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어려움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이 생활양식의 개념은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외적인 강요나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생활양식이라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실천가들은 에너지를 보다 적게 사용하고 보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보다 더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서비스나 식품, 재화 등의 자급자족을 실천하며 각종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태조직에 기여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기 산업사회 소비자의 특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Wilhelm & Keith, 198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은 근대사회 이전에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분적으로 인식되고 실행되어 오던 생활양식이며, 최근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인식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개념으로서, 물질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적 가치에 초

점을 맞춘 대안적 생활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환경운동의 전개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한계로서 지적되는 다양한 문제 중 성장의 한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의 하나가 환경문제이며,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주된 환경운동의 방향이 결정된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가 있다. 기술중심주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가 정당화되어 환경의 무조건적인 보존보다는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이정전, 1998). 이에 반하여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생태계는 그 안에 생물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성장과 자연착취의 결과로 생태계의 한계포용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났다고 본다(박순희, 2000).

기술중심주의에 입각한 환경운동이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 또는 정책 등에 의존하여 재활용과 폐기물처리를 효율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방향이라고 한다면,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한 환경운동은 인간중심의 가치관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전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방향을 지향한다.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러 기술중심주의로부터 생태중심주의로 변화되면서 이 관점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된 특징을 이루게 된다. 새로운 사회운동에서는 정치적 요구와 정치적 변동보다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생활의 질, 생활양식, 관계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소규모의 비공식적 조직을 통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운동과 구별된다. 또한 운동의 주체로서 학생이나 주부, 노인 등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부각된다(최종욱, 권용혁, 1994). 이에 따라 1960년대 이전까지의 환경운동이 경제적 손익 계산에 입각한 합리적인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왔다면, 6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같은 목표 자체를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자연보호운동협회, 생활환경보호집단, 공해반대운동, 사용자보호운동, 소비자운동, 대안적 생활운동, 반핵운동, 극좌파운동, 대안적 좌파 등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운동의 정치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독일에서 전개된 환경운동의 발전과정에서 환경주의자들은 기존의 의회민주주의의 제도가 자연환경의 파괴와 '삶의 질'을 문제시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해왔다(정수복, 1994).

이들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는 이념을 내걸고, 이에 맞추어 활발한 환경운동을 전개해왔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지역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실천운동을 발전시켜왔다. 이들은 각국별로 실천한 내용들을 네트워크와 회의 등을 통하여 발표, 비교하며 보다 나은 홍보, 교육, 기술, 실천 대책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운동 중의 대표적인 것이 '유럽 의제 21 프로그램(European Local Agenda 21 Programme)'이다(<http://www.iclei.org>를 인용한, 최정신a, 2001).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는 경제의 산업화가 진척되고 대량소비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민주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기틀이 형성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절감한 환경문제는 폐기물 문제였다. 소비의 증대와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회용품 소비의 급속한 확산은 이전까지 실시되어오던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게 하였고, 환경문제가 생활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많은 대형 수질오염 사건들은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오염방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을 증대시켜왔다. 이 밖에도, 화석에

너지자원의 유한성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조건의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정부의 환경청이 발족되고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환경운동이 전문화, 연계화되기에 이르렀으며, YWCA, YMCA 등의 각종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단체인 혹은 행정부와의 제휴를 통하여 환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통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다(최정신b, 2001).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실시했던 '적게, 작게, 천천히' 대안적 생활양식지향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의 목표는 기존의 '빨리빨리, 많이, 크게'에 집착하는 과소비적인 생활양식이 인간의 삶과 환경을 파괴시켜온 것을 극복하는 데 있다. 여기서 제시한 실천지침으로는 물과 전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사용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과대포장 상품을 거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유기농법으로 지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 등 10가지가 있다(이영자, 2000).

또한, 이보다 앞서 1970년대 초 원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용협동조합운동'에서 발전된 '한살림 공동체운동'은 전국의 주요 도시와 농촌을 잇는 공동체적 연대의 조직을 형성하였다. 한살림운동은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로 도농간의 농산물직거래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낭비와 파괴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기구로부터 가능한 한 독립성을 유지하여 개인 및 가정의 자치권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생활협동운동이며, 이와 같은 노력은 생태학적 건강을 되찾으려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장일순, 1997).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 시민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생활양식의 변화를 지향하는 환경운동은 앞으로 생활관리의 각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무한한 발전의 잠재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다소나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자발적 단순성 지향'과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한 환경운동'을 연계시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이 두 개념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자발적 단순성지향 개념의 발달과 이 개념에 기초한 환경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실증조사에서는 자발적 단순성 지향 생활양식,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 및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 및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과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서 1인 가정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1년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광주와 전주에 거주하는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는 훈련받은 면접원이 조사대상자와 직접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시행되었다. 생활주기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표본추출이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에 사용된

최종분석자료는 248부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실증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도구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종속변인으로서 자발적 단순성지향과 환경운동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을 포함시켰으며, 선행변인으로서 주부의 연령과 결혼지속년수, 주부의 종교유무 및 취업여부, 통제소재, 남편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족유형, 가족수, 주택의 유형 및 소유형태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중심과제가 되는 자발적 단순성 지향 문항은 Leet와 Driggers(199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기초로 총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선정된 단순성지향의 문항은 자신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부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경우까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합산하였다. 사용된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695이었다.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 문항은 홍은표(1992)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에서 제시된 영역분류를 기초로 하여 총 5개 영역 2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합산하였다. 사용된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621이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주부의 취업은 취업한 경우와 무직 및 전업주부의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주부의 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남편의 직업지위는 홍두승(1983)의 분류를 근거로 ① 무직, ② 판매직·서비스직, ③ 생산직, ④ 사무직, ⑤ 전문기술직, ⑥ 관리직, ⑦ 전문직, ⑩ 기타로 구분하였다. 한편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가족수는 현재 함께 동거하는 가족수로 측정하였고,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계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 가계의 월평균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와 기타, 그리고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통제소재는 윤소영(1991)의 연구에 기초하여 8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내적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문항의 답을 합산하여 8점에서 40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비율을 구하였으며, 자

발적 단순성지향 정도와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관계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주부의 평균연령은 39.8세이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8)

변 수	집 단	빈도	%	변 수	집 단	빈도	%
주부연령	20-29세	38	15.4	결혼지속년수	10년 미만	81	33.1
	30-39세	86	35.0		10~20년 미만	68	27.8
	40-49세	94	38.2		20~30년 미만	78	31.8
	50-59세	21	8.5		30~40년 미만	14	5.7
	60세이상	7	2.8		40년 이상	4	1.6
주부교육수준	초졸 이하	7	2.8	가족유형	핵가족	223	90.3
	중졸	33	13.4		확대가족	24	9.7
	고졸	122	49.6	가족수	2인이하	26	10.5
	대졸	65	26.4		3인	39	15.8
	대학원 이상	19	7.7		4인	111	44.9
			5인이상		71	28.7	
주부의 취업	유	124	51.7	가계소득	110만원이하	25	11.0
	무	116	48.3		111-210만원	109	48.0
주부의 종교	유	156	64.2		211-310만원	55	24.2
	무	87	35.8		311만원이상	38	16.7
남편의 직업	무직	4	1.7	주택유형	단독주택	76	32.3
	판매-서비스직	46	19.3		집합주택	159	67.7
	생산직	24	10.1	주택소유형태	자가	132	64.7
	사무직	67	28.2		타가	72	35.3
	전문-기술직	41	17.2				
	관리직	29	12.2				
	전문직	25	10.5				
	기 타	2	0.8				
		N	Mean	S.D.			
단순성 지향 생활양식		238	70.1	7.0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		235	97.2	13.8			

16.2%, 고졸이 49.6%, 대졸이 26.4%,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7.7%이었다. 취업주부가 51.7%, 전업주부가 48.3%였고, 종교를 가진 주부는 64.2%, 종교가 없다는 주부는 35.8%였다.

가족수는 2인 가족이 10.5%, 3인 가족이 15.8%, 4인 가족이 44.9%, 5인 이상의 가족이 28.7%였고, 평균 가족수는 4명이었다.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90.3%였으며, 결혼지속년수는 10년 미만이 33.1%,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9.8%,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1.8%,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5.7%, 40년 이상이 1.6%였다.

남편의 직업은 무직 1.7%, 판매·서비스직 19.3%, 생산직 10.1%, 사무직 28.2%, 전문·기술직 17.2%, 관리직 12.2%, 전문직 10.5%였고, 기타에 농업을 기재한 응답자가 0.8%(2명)이었다.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240만 3천원으로 이는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수준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¹⁾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64.7%, 임차주택이 35.3%이었고,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32.3%, 아파트가 64.8%, 연립주택이 2.9%였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의 정도는 평균점수가 70.1점,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의 정도는 평균점수가 97.2점으로써 각각의 중간점수인 60점(최소 20점, 최고 120점)과 75점(최소 25점, 최고 125점)을 상회하는 中上位의 점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연구문제의 분석

〈연구문제 1의 검증: 개인 및 가족특성변인에 따른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차이〉

개인 및 가족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발적 단순성지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Test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의 결과, 개인 및 가족특성변인 중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결혼지속년수가 자발적 단순성지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 이상

의 경우보다 더 높은 단순성지향을 보였으며, 남편의 직업이 없는 경우와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인 경우가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에 비하여 단순성을 지향하였고,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더 높은 단순성지향 점수를 나타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남편의 직업지위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척도로 가계소득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부정적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한 소비자보다 풍요한 소비자가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소비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의식을 보였다는 Webster(1975), Herberger(197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소득이 단순성지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순희(199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된다.

이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시민사회로 발전되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단시간에 거쳐서 강대국의 주도하에 근대사회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소득층의 시민의식의 수준이 경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손상희(2001)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듯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이 이웃과 비슷한 정도로 남편의 지위나 집의 평수에 따라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타인지향적 소비주의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는 본 연구의 결과 결혼지속년수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이나 주부연령이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일관성있게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과 함께 해석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한 가계들은 본래적 의미의 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보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경향이 앞으로라도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생활양식의 개선에 바탕을 둔 환경

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조사시점이었던 2001년 2/4분기의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2,714,383원이었다.

<표 2> 개인 및 가족특성에 따른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차이

개인 및 가족특성		N	평균	t-Value, F-Value	Scheffe Test #
주부연령	20~29세	36	69.06	1.96	
	30~39세	82	69.76		
	40~49세	91	70.05		
	50세 이상	27	73.07		
남편교육수준	중졸 이하	10	75.40	3.82*	a
	고졸	91	70.35		b
	대졸 이상	130	69.32		b
주부취업여부	취업	118	69.33	3.22	
	비취업	112	70.98		
주부의 종교유무	유	149	70.32	0.26	
	무	84	69.83		
남편의 직업	무직	4	79.50	2.68*	a
	판매-서비스, 생산직	64	70.53		a b
	사무직, 전문-기술직	106	69.69		a b
	관리직, 전문직	52	69.65		b
결혼지속년수	10년 미만	78	68.85	2.67*	a
	10~20년 미만	64	70.89		a b
	20~30년 미만	75	69.76		a b
	30년 이상	14	73.61		b
가족유형	핵가족	214	69.97	0.26	
	확대가족	23	71.74		
가족수	3인 이하	62	68.73	1.82	
	4인	100	70.83		
	5인 이상	69	70.35		
가계소득	120만원 이하	34	72.24	2.44	
	121~360만원	154	70.05		
	361만원 이상	30	68.47		
주택유형	단독주택	70	69.66	.343	
	집합주택	156	70.26		
주택소유형태	자가	128	69.93	.169	
	타가	67	70.36		
통계소재	하(17~24)	84	69.8	1.02	
	중(25~26)	72	69.3		
	상(27~31)	72	70.9		

*p<.05

#Scheffe 검증 결과 같은 문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운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거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임에 비추어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인 집단의 생활양식은 미래

사회의 전반적 성향을 예측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지향방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상층집단의 생활양식은 중요성을 지닌다.

〈연구문제 2 : 개인 및 가족특성변인에 따른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의 차이〉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은 내용에 따라 자연보전, 대기환경보전, 물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친환경생활문화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1 참조>). 조사대상자들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점수는 친환경생활문화영역(21.4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폐기물관리(20.31점), 대기환경보전(19.51점), 자연보전(18.80점), 물환경보전(17.2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족특성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Test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개인 및 가족특성변인 중 주부의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주부의 취업여부, 주부의 종교유무, 결혼지속년수, 가계소득, 주부의 통제소재가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환경운동의 하위영역은 대기환경보전, 물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친환경생활문화의 4개 영역이었으며,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물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친환경생활문화의 3개 영역, 그리고 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자연보전과 대기환경보전의 2개 영역이었다. 또한,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기환경보전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나 주부의 종교유무,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는 폐기물관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영역의 평균점수에 기준할 때, 물이나 대기보전, 폐기물관리, 친환경생활문화 모든 영역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40대의 경우 실행보다는 의식이 강조되어 조사된 친환경생활문화 영역에서 전체 연령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데 반하여 이 영역에서 20대, 30대가 50대에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20대는 장바구니 사용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영역에서 최저점을 보였고 30대는 자가용의 10부제운행이 포함된 대기

환경보전영역이나 수도권지를 세계 들지 않기와 같은 물 환경보전영역에서 전체 연령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20, 30대는 40, 5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절약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세대이며 학교교육을 받은 시기가 가까우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대기환경보전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사실이나 종교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더 높은 폐기물관리점수를 보였다는 사실과 함께 해석될 수 있다. 즉,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실행에 있어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활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형식교육의 양적 증대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민현선, 이기춘(1999)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환경친화적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의 원인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으로부터 기인되는 공공이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불편함, 경제적 비용, 정보 부족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문제는 곽인숙, 박정희(2000)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은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과 생태지향적 가치, 환경지식, 환경관리행동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 의식이나 지식보다 실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120만원 이하의 하집단으로부터 121만원 이상 360만원 이하의 중집단, 361만원 이상의 상집단으로 갈수록 물환경보전이나 폐기물관리 영역에서 점차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 두 영역에서의 점수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 두 영역이 절약생활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질약과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일 경우에 절약생활의 실천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개인 및 가족특성에 따른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차이

환경운동	자연보전			대기환경보전			물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친환경생활문화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개인 및 가족특성	20~29세	38(19.58)		37(19.30)	a		37(15.16)	a		36(19.39)	a		38(21.21)	a b	
	30~39세	85(18.67)	.87	84(18.98)	4.40** a		85(16.35)	5.05** a		85(20.29)	3.73* a b		86(21.99)	3.58* a b	
	40~49세	94(18.55)		93(19.43)	a		93(17.48)	a		93(20.30)	a b		93(20.84)	a	
	50세 이상	28(19.58)		28(21.79)	b		28(22.14)	b		28(21.82)	b		27(22.33)	b	
남편교육	중졸 이하	12(19.33)		12(23.00)	b		12(18.25)			12(20.92)			12(21.17)		
	고졸	96(18.36)	1.13	93(19.17)	6.00* a		95(17.07)	.12		94(20.64)	.38		95(21.21)	.61	
	대졸 이상	132(19.04)		132(19.41)	a		131(17.11)			131(20.29)			132(21.61)		
주부취업	취업	116(18.57)		115(19.44)			115(17.35)			114(20.31)			114(21.63)		
	비취업		1.12		.47			1.65			4.38*			.40	
주부종교	유	156(18.98)		152(19.55)			153(17.35)			155(20.46)			155(21.32)		
	무		1.49		.42			2.74			4.28*			.78	
남편직업	무직	4(18.73)		4(21.25)			4(17.25)			4(23.00)			4(23.00)		
	판매·서비스직/생산직	70(18.73)	.02	67(19.87)	1.4		68(16.94)	.58		69(20.25)	1.18		69(20.91)	1.76	
	사무직/전문-기술직	108(18.79)		108(19.03)			107(16.64)			105(20.39)			108(21.56)		
	관리직, 전문직	54(18.87)		53(20.04)			54(20.31)			54(20.31)			53(21.92)		
결혼지속년수	10년 미만	80(19.05)		79(18.97)			80(15.69)			79(19.94)	a		81(21.57)		
	10~20년 미만	68(18.72)	.65	67(19.15)	1.98		66(16.64)	2.59		67(20.25)	3.00* a		67(21.90)	2.49	
	20~30년 미만	78(18.38)		77(19.92)			78(18.83)			77(20.26)	a		77(20.71)		
	30년 이상	18(19.39)		18(20.89)			18(19.11)			18(22.22)	b		18(21.94)		
가족유형	핵가족	222(18.72)		220(19.55)			220(17.25)			219(20.39)			221(21.44)		
	확대가족		.06		.79			.13			.11			.01	
가족수	3인 이하	111(18.54)		64(19.55)			64(16.16)			63(20.22)			64(21.72)		
	4인	71(18.93)	.63	110(19.57)	.05		109(17.97)	1.08		110(20.34)	.07		110(21.47)	.64	
	5인 이상	64(19.14)		69(19.41)			71(17.13)			70(20.41)			71(21.17)		
가계소득	~120만원	37(18.68)		37(19.84)			37(18.43)	a		34(21.85)	a		37(21.84)		
	121~360만원	158(18.64)	.87	156(19.44)	1.04		156(16.87)	6.36** a b		158(20.18)	5.91** a b		158(21.39)	.38	
	361만원~	31(19.55)		30(18.67)			31(15.45)	b		31(19.61)	b		31(21.45)		
주택유형	단독주택	76(18.70)		73(19.44)			75(19.32)			76(20.59)			76(21.21)		
	집합주택		.30		.05			2.85			.54			.38	
주택소유	자가	131(18.48)		130(19.49)			129(17.90)			131(20.18)			130(21.53)		
	타가		.87		1.06			1.81			.88			.46	
통계소재	외적(17~24)	45(17.60)	a	44(18.48)	a		44(16.59)			45(19.93)			45(21.09)		
	중간(25~26)	117(18.82)	.32* a b	116(19.44)	3.03* a b		117(16.62)	1.39		114(20.04)	1.66		115(21.23)		
	내적(27~31)	73(19.34)	b	72(20.21)	b		72(18.51)			74(21.82)					

* *p<.05, **p<.05

#Scheffe 검증 결과 같은 문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가 폐기물관리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통제소재에 따라서는 내적통제성이 더 높은 집단일수록 자연보전이나 대기환경보전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영역 중 자연보전보다 대기환경보전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의 정도가 내적 통제성향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신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일 경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높은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앞으로의 환경교육에서 연령이나 교육수준, 종교, 결혼지속년수, 가계소득, 개인의 통제소재정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식 및 실행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연구문제 3의 검증: 자발적 단순성지향과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의 관계〉

자발적 단순성 지향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개념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과 환경운동 선호의 두 변인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에 기초를 두고 효과적인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결과 이들 두 변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r = .52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은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발적 단순성 지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하위영역별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Test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발적 단순성지향을 전체 응답자의 비율을 중심으로 下, 中, 上으로 나누어 볼 때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연보전, 대기환경보전, 물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친환경생활문화 선도의 하위영역별 환경운동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성 지향의 수준이 下인 집단과 中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자연보전과 대기환경보전이었으며, 물환경보전은 上집단과 中 이하의 집단간 점수차이가 유의하였다. 또한 폐기물관리와 친환경문화의 경우에는 上中下 각각의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순성 지향의 정도에 따라 下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히 자연보전, 대기보전에 대한 환경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일차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성 지향의 정도가 上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물환경보전에 대한 환경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자발적 단순성지향에 따른 각 하위영역별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의 차이

환경운동선호	자연보전			대기환경보전			물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친환경생활문화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N(평균)	F값	Scheffe#
하(49~66)	67(17.34)		a	67(18.39)		a	66(14.92)		a	66(18.47)		a	67(19.88)		a
중(67~73)	97(19.03)9.42***		b	96(19.15)10.57***a		a	96(16.56)9.26***a		a	96(20.42)29.08***b		b	97(21.65)24.845***b		b
상(74~92)	73(19.85)		b	72(21.06)		b	73(20.38)		b	72(21.94)		c	72(22.88)		c

*** $p < .001$

#Scheffe 검증 결과 같은 문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자발적 단순성지향'과 환경운동을 연계시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이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자발적 단순성지향 개념의 발달과 환경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실증조사에서는 자발적 단순성지향 생활양식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수행하는지를 찾아보았고, 개인 및 가족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과 환경운동은 모두 자본주의 발달과정의 폐해를 인식하면서 제기된 개념으로 최근 들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이론적 전개를 통하여 파악하였고, 실증조사의 결과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과 환경운동이 유의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분석되어 이 두 개념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순성지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운동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이 확산되는 것은 환경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발적 단순성지향이 생활양식의 대안으로 확산될 때 환경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성지향 생활양식이 개인 및 가족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변인으로서 정적(靜的)·기술적(記述的) 측면에서 파악되어왔던 것으로부터 미래사회에는 보다 역동적(力動的)·규범적(規範的)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기존의 가정학 내지는 생활과학이 사회변화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바람직한 생활양식의 제시뿐 아니라 환경운동의 주체학문으로도 인식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둘째, 환경운동의 5개 하위영역 중 주로 의식적 차원의 문항으로 구성된 친환경생활문화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하여 실천적 내용이 다루어지는 다른 영역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소득수준이 낮고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가 낮은 경우, 가족생활주기적 특성은 생활주기가 후기인 경우 자발적 단순성지향 및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본래적인 '자발적' 개념이나 '성숙한' 시민의식의 차원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배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손상희(2001)의 지적대로 타인지향적인 소비주의적 성향, 타인에 대한 경쟁심리나 물질주의적 사고 방식,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등에 대한 이해 및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은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은 주부의 연령과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생활주기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추후의 이에 관한 연구는 두 변수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통제소재가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환경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세분화시킬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아개념이 급속히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많은 부분이 형성된다고 볼 때, 이 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의 환경 의식과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환경의 호혜성에 바탕을 둔 건강한 미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는 개인과 가

<부록 1> 환경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의 하위영역

환경의식 및 행동의 하위영역	내 용
자연보전에 초점을 맞춘 환경의식 및 행동	가.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로부터 나온 제품은 사지 않는다. 나. 제철에 우리 땅에서 난 식품(신토불이)을 사려고 노력한다. 다. 농약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공해식품을 구입한다. 라. 환경호르몬이 걱정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식품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마. 유전자변이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
대기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춘 환경의식 및 행동	가. 녹지대의 보존과 조성이 필요하다. 나. 웬만한 거리는 걷는다. 다. 프레온가스를 사용한 스프레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자가용 차량의 10부제 운행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마. 대기오염 현황을 알려 국민들이 분진,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춘 환경의식 및 행동	가. 수도꼭지는 세계 틀지 않는다. 나. 세탁기에 사용한 물로 청소를 한다. 다. 변기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어 물을 절약한다. 라. 합성세제를 줄이고 오염이 적은 비누를 사용한다. 마. 정화되지 않은 공장폐수를 내보내는 곳을 시민들이 감시해야 한다.
폐기물관리에 초점을 맞춘 환경의식 및 행동	가.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일회용 비닐백의 사용을 줄인다. 나. 버릴 것과 재사용가능한 것을 분류하여 가능한 한 재사용되도록 한다. 다. 생산자가 포장지의 폐기비용을 내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과대포장을 줄인다. 라.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의 공급기간이나 수리가능기간을 연장한다. 마.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인다.
친환경생활문화의 선도에 초점을 맞춘 환경의식 및 행동	가. 자연과 인간이 공동체라는 인식은 중요하다. 나. 환경운동단체를 조직화(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직접거래를 조직화해야 한다. 라. 공해는 인류 모두에게 해를 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마. 환경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 기업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환경을 고려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확산될 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곽인숙, 박정희(2000).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과 이주 이사. *대한가정학회지*, 38(12), 177-188.
김명자(2001). 지속가능한 삶과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 54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10.
김영재, 김정숙(1999).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제주시 주부를 대상으로-. *대한가정*

학회지, 37(3), 157-174.

김은지, 유두련(2000). 환경상품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1(3), 41-58.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의식주, 경영, 구매, 가족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현선, 이기춘(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박명희(2001). 시민생활양식변화의 전망과 녹색생활문화. *녹색소비자연대 자료집*, 39-55.
박순희(1997). 가정복지와 자발적 단순성 지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족 결속력, 적응, 가사노동만족도와 경제적 복지. *효성여자대학교 박*

- 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희(2000).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운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38(11), 69-104.
- 박영숙(2001).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양식-리우 +10과 녹색소비. *녹색소비자연대 자료집*, 18-31.
- 박운아(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영미(1998). 현대소비문화와 한국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9(1), 17-32.
- 손상희(2001). 한국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 :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59-278.
- 송인숙(1999).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1), 85-95.
- 서정희(1999). 21세기 소비자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의 과제와 방향. *소비문화연구*, 2(1), 119-138.
- 성영신(1994). 한국인의 그릇된 물질주의와 과소비 유형. *한국 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97-110.
- 유진 오덤, 이도원, 박은진, 송동하 역(1998). *생태학 : 환경의 위기와 우리의 미래*. 서울:사이언스 북스.
- 윤소영(1991).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 및 통제소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정혜, 이희숙(2001).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방안 고찰. *대한가정학회 54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32-48.
- 이덕승(2001). 녹색소비생활 실천운동의 현황과 과제. *녹색소비자연대 자료집*, 32-38.
- 이영자(2000).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여성과 남성. 서울:나남출판.
- 이정전(1998). *녹색경제학*. 서울:한길사.
-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1997).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대구:녹색평론사.
- 정수복(1994). 유럽 환경운동의 형성과 전개-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 문원, 136-162.
-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 가정폐기물 분류배출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종욱(1994). 현대의 위기와 '위험사회'의 현상학.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문원, 9-32.
- 최종욱, 권용혁(1994). 새로운 사회운동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담론.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 문원, 33-104.
- 최정신a(2001). 스웨덴의 환경운동과 생태주거건축. *녹색소비자연대 자료집*, 4-17.
- 최정신b(200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운동과 주거환경. *대한가정학회 54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66-74.
- 홍은표(1992). *현대소비자론*. 서울: 석정.
- Cornill, T.A., Oransky, K.S. & Pestle, R. (1979). Changing family lifestyles: Adapting to the energy crisis. *Journal of Home Economics* 71(4), 36-37.
- Elgin, D.S. & Mitchell, A. (1977).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 of the future?. *The Futurist* 11, 254-261.
- Herberger, R.A. Jr. (1975). The ecological product buying motive: A challenge for consumer educ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9, 187-195.
- Leet, D.R. & Driggers, J. (1990). Economic decisions for consumers. Wadsworth Pub. co.
- Leonard-Barton, D. (1981).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s and energy conserv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243-252.
- Leonard-Barton, D. & Rogers, E.M. (1979). Voluntary simplicity. In Olson, J.C. 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 Ann Arbor: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Pestle, R.E., Cornille, T. & Solomon, K. (1982). Lifestyle alternative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attitude scale. *Home Economics*

- Research Journal*, 11(2), 175-182.
- Shama, A. (1981). Coping with stagflation: Voluntary simplicity. *Journal of Marketing*, 45, Summer, 120-134.
- Webster, F.E. Jr. (1975).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ly conscious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 188-196.
- Wilhelm, M.S. & Keith, J.G. (1987). Predictors of voluntary simplicity in consumer behaviou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13-129.

(2003년 9월 30일 접수, 2003년 11월 19일 채택)